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6·25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달 25일(화) 6·25전쟁 74주년을 기념해 달성군 천내리에 있는 지하철 화원역에서 6·25 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주현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실제로 먹었던 주먹밥과 보리떡을 지하철 화원역을 오가는 지역민들에게 음식 세트 500여 개를 나눠줬



다. 또한 6·25전쟁 당시 사진과 호국안보 사진을 전시했다.

김주현 달성군지회장은 “다시 한 번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에 감사드리고 지역민들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준업 객원기자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모유수유실’ 설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테크노스포츠센터는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제1118호 수유실 설치 인증을 받아 지난달 19일(수) 현판식을 가졌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두류수영장-(주)이너트론
불법 촬영 원천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지난달 28일(금) 두류수영장 내 불법 촬영 범죄예방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RF기술 전문기업 (주)이너트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호야네식당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440
예약 ☎053-617-5222

몸보신하려면 ‘한방백숙’ 건강한 맛집!

운치 좋고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한방 닭백숙, 삼계탕 전문점 ‘호야네식당!’

가는 길 내내 풍경이 얼마나 이쁜지 파랗고 맑은 하늘에 알록달록한 나무들 구경하며, 앞에 낙동강도 보이고, 넓은 주차장까지 있어 편하게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파릇파릇한 화초가 반겨주는 ‘호야네식당’은 여기저기 센스있는 사장님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식당이다.

자리를 잡고 앉자, 사장님이 정성껏 만든 정갈한 밑반찬들이 나왔다. 많이 짜지도 않고 적절한 간의 양념 고추, 김치, 마늘장아찌, 무우장아찌와 새콤달콤 양파장아찌, 버섯볶음까지 깔끔하다.

두부를 좋아해 ‘촌두부’도 같이 주문했다. 담백하고 부드러워 고소해 밑반찬으로 주신 김치랑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다.

두부랑 밑반찬들을 한입씩 먹다



보면 메인 ‘한방 닭백숙’이 나온다. 평상시 먹던 뽕얀 백숙이 아니라, 진하고 닭이 노랗게 변해있어 사장님께 여쭙보니, 강황버섯을 같이 넣고 푹 끓인다고 하셨다.

국물이 엄청 진해서 건강해지는 맛…!

닭고기도 엄청나게 크고 부드러워 발라 먹기도 편하면서 보양하는 느낌이 든다. 아이들, 어른들과 함께 먹기 너무 좋을 거 같다.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진한 육수에



참쌀밥을 끓여 먹거나, 참쌀밥을 그냥 먹어도 맛있다.

영양 가득한 ‘한방백숙’이다. 다시 또 생각날 집이랄까…?

‘호야네식당’은 가족실에 노래방 시설도 갖추고 있어 대가족이나 모임 장소에도 제격이다.

조리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니 사전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으니 꼭 예약하고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 영업시간: 매일 10:00~21:00
연중무휴, 가족실(노래방 시설완비)

신세란 객원기자